

관람 시간

10시-18시
(입장 마감 17시 30분)

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20명 이상 단체의 박물관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

문의전화

032-290-2000, 2001

박물관 편의 시설

1F 안내, 뮤지엄샵, 물품보관소, 수유실

2F 카페테리아, 산책로

세계 문자 소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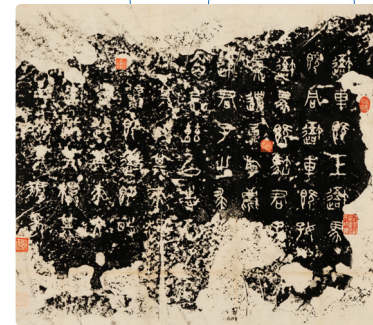
3



4



5



6



7

1 켈기문자 | 원형 배 점토판

고바빌로니아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점토판에는 앞뒤로 켈기 문자가 총 60줄이 기록되었다. 이 점토판은 전통적인 홍수 신화의 아카드어 판본으로 볼 수 있다. 대홍수 신화는 공통적으로 신이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주인공이 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집트문자 | 샤브티

샤브티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장품으로 망자와 함께 묻었던 장례 인형으로, 이집트어로 '대답하는 자'라는 뜻이다. 샤브티 몸에 이집트어로 적힌 주문은 '사자의 서' 6번 주문으로, 망자가 호명되었을 때 망자 대신 대답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라틴문자 | 대리석 유골함

유골함은 로마 상류층의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양쪽에 새겨진 잠든 사랑의 신 쿠피도는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죽은 남편을 상징한다. 비문에 새겨진 글씨체는 로마의 공식 비문체 '대문자 기념비체'로, 기념비나 관청 건물에 새겨지던 네모난 형태의 고급 대문자 서체다.

4 아랍문자 | 쿠란

쿠란은 이슬람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경전이다. 다양한 서체들이 사용되었으며, 각 장에는 장미꽃 형태의 로제트와 금채 장식이 아름답게 더해져 있다. 무슬림들은 신의 말씀이 담긴 쿠란의 필사를 중요한 종교적 행위로 여겼다. 이처럼 쿠란은 아랍어와 아랍문자의 확산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5 인도·동남아시아문자 | 팔천송반야경 패엽경

팔천송반야경은 팔천 개의 계송(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으로 이루어진 반야경이다. 이 필사본은 아자수 앞에 필사되었으며, 문자는 초기 네팔 문자로 판단된다. 뒷면은 앞면과 다른 문자 표기 방식을 보인다.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쓴 흔적도 있는데, 이는 인도의 구전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사본 중앙에는 남성 보살상이 그려져 있다.

6 한자 | 석고문 탁본

석고문은 돌에 새겨서 전하는 한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석고는 돌로 만든 북이라는 뜻으로, 그 모양이 북을 닮아서 붙여졌다. 비문에는 사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원래는 10개의 돌에 약 700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지금은 마모되어 약 270자만 남아 있다.

7 한글 |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조선 왕조의 세종 대왕이 만든 '훈민정음(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한문으로 풀이한 책이다. 책은 총 33장으로,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와 목적, 글자의 제자 원리와 발음 체계, 글자 조합과 사용 예시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자의 창제 원리를 기록한 세계 유일의 책으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상설 전시안내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

한국어



인류에게는 먼저 말과 소리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에는 말에 표정과 손짓을
더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갈망하던 인류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습니다. 그 열망 끝에 태어난

놀라운 발명품이 바로 ‘문자’입니다. 이제 말과
소리, 생각과 감정도 모두 문자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문자를 통해 기억을 이어가고,
서로의 거리를 좁히며 소통의 세계를 점점
넓혀 갔습니다. 그 순간, 인류의 역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저마다 처한 환경에
맞게 문자를 새로 만들거나 받아들였습니다.
그 발명 덕분에 인류는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때로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적 관계, 때로는 종교적 신념,
때로는 상인들의 교류를 따라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는 라틴문자가,

서아시아에는 아랍문자가, 인도에는 데바나가리
계열 문자가, 동아시아에는 한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가 사용한 문자는
무려 400여 종에 이르지만, 오늘날 실제로
쓰이고 있는 문자는 30여 종에 불과합니다.
문자는 인류가 함께 만든, 그리고 함께 지켜 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자는 언제나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 주는
다리였습니다. 문자를 통해 인류는 소통 방식을
혁신했고, 그 힘으로 사회 제도를 거듭 개혁해
나갔습니다. 특히 가장 눈부신 소통의 혁명은
인쇄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인쇄기의 발명으로
책을 무한히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이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번역되고
기록되었고, 지식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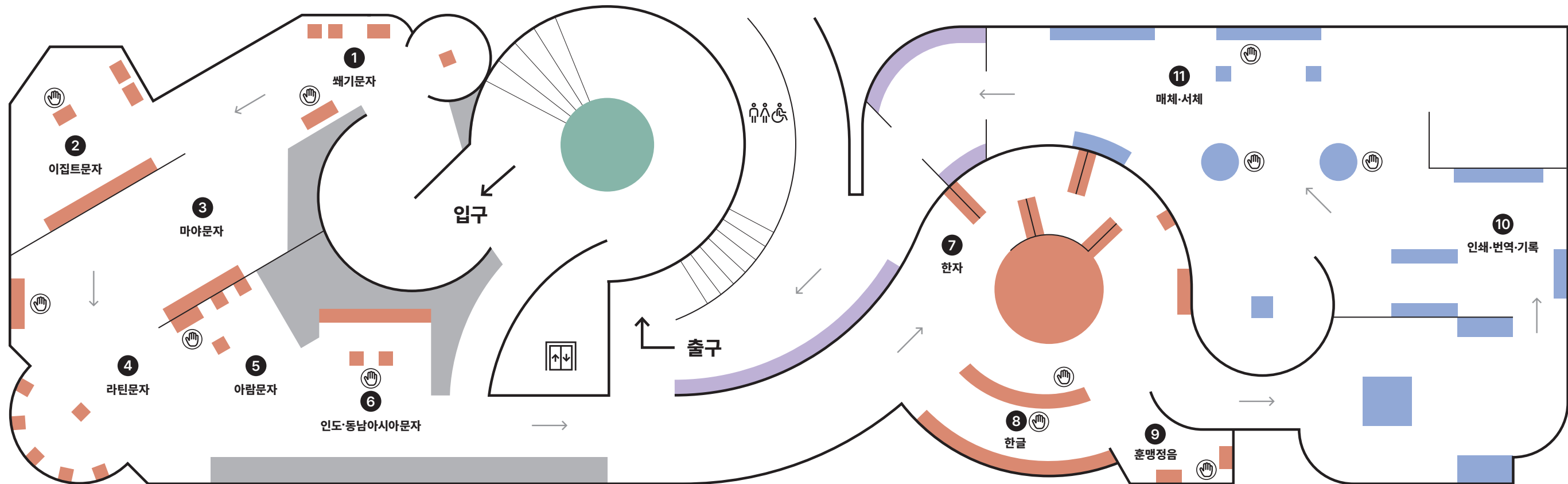
더 이상 소수의 권위와 특권이 유지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명을 지탱한 또다른 조력자는
바로 종이였습니다. 늘어난 책의 수요를 오롯이
종이가 떠받쳤습니다. 또한 한정된 지면에
더 많은 정보를 담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체의 개량도 이어졌습니다.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번역은 지식의 확산과 공유를,
기록은 지식의 전승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에게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 매체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상으로 말하고,
음성으로 기록하며,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인종과 지역, 역사가 만들어 놓은

언어와 문자의 장벽은 디지털 기술로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번역 기술은 인류를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문자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인류가 함께 사용하는 ‘세계 문자’가
새롭게 생겨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승영, 《바벨탑》, 2023 © 김용관 Kim Yong-kwan



- 프롤로그: 위대한 발명
 - 1부: 문자, 길을 열다
 - 2부: 문자, 문화를 만들다
 - 에필로그: 내일의 문자
- ☞ 기호가 표기된 위치에
촉각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물의 안전을 위해 전시품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